

# 제주 공동체문화와 4·3항쟁의 발발 조건

홍기돈\*

- I. 4·3항쟁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 II. 자연 환경과 문화 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
  - 1. 다시 읽는 송당본풀이: 제주문화 형성의 기본조건 이해
  - 2. 민족국가의 등장과 제주인의 분리의식: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충돌
- III. 출륙금지령 이후 제주의 실상과 제주공동체문화의 특징
  - 1. 생활공동체의 형성: 수눌음과 말·전복 진상의 고된 부역
  - 2. 신앙공동체의 형성: 출륙금지령과 '1만 8천 신들의 고향'
- IV. 제주문화의 전통과 4·3항쟁 발발 즈음의 상황
  - 1. 근대 체제 가운데서 강화된 제주의 공동체의식
  - 2. 한반도로부터의 분리의식과 인민위원회 활동
- V. 분리주의의 자율성에 입각한 민족공동체 구성 모색

## 국문요약

페르낭 브로델(Fernard Braudel)의 '3중 구조'이론을 적용하여 제주 특유의 공동체문화가 구축되는 과정을 역사 전개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3항쟁의 발발 조건을 분석하고 있는 논문이다. 제주도는 '삼재(三災)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송당본풀이』에 수렵문화와 농업문화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상 교역으로 나아가는 양상이 드러내는 바, 과거 제주인들은 이러한 조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건을 절박하게 깨달았던 것 같다. 유물 및 사료를 통해서도 중국의 한(漢), 한반도의 삼한(三韓), 일본 등과 교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출 품목은 1276년 원(元)이 제주에 목마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많은 이윤을 남기는 말로 바뀌었다. 그런데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조선의 태종, 세종 대에 이르면서 제주의 말 산업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어 버렸고, 말 도살에서 생긴 부속물의 매매까지 견제받으면서 붕괴되고 말았다. 말 산업의 몰락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제주인들은 유민(流民) 혹은 수적(水賊)이 되어 한반도 주위 바다를 떠돌았다. 이를 막기 위해 내려진 것이 1629년의 출륙금지령이었다. 200여 년 지속된 출륙금지령 속에서 제주는 육지와와의 민간 교류가 막힌 채 척박한 환경에 맞서면서 생존을 이어나가야 했다. 마을 단위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제주 특유의 공동체의식은 이 과정에서 구축되었고, 그러한 정신이 제도로 정착된 것이 수눌음이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신앙공동체의 성격까지 끌어안고 있었으며, 제주인들은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신앙을 탄압하는 중앙권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배타적인 분리의식을 키워나갔다. 근대로 돌입하여 마을공동체가 강화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지주자본이 진출하지 않아 농촌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데다가, 종래 국유지였던 목장지대와 해안 어장이 마을 공유지로 전환된 것이 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해방을 맞은 제주인들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에 입각하여 지방 분권주의가 들어서기를 열망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들은 이를 위배하였으며, 육지에서 파견된 세력은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갔다.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가 4·3을 제주 대 육지의 대결로 보고 개입을 꺼린 끝에 제11연대로 교체된 것은 당시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여기에 4·3항쟁을 다루는 많은 소설들이 제주 특유의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

주제어 : 페르낭 브로델의 3중 구조 이론, 3재의 섬, 출륙금지령, 제주공동체문화, 4·3항쟁.

## I. 4·3항쟁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인간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조건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지금-여기의 입장에서 다른 세계를 재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오해와 편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좌우익 대립 구조가 선명해진 것은 6·25전쟁을 경과하면서부터이다. 예컨대 김동리는 완고한 보수우익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민중문학론자인 임현영·염무웅·구중서에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이념 공세를 펼쳤을 정도였다.<sup>1)</sup> 그러한 김동리도 해방기에는 제3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었다. 민족국가 건설에만 매달리는 우파문학을 애국문학, 민족주의문학이라 규정한 그는 “중앙문화협회, 문필가협회 계통의 김광섭, 이병기, 김동인, 함대훈, 박종화, 양주동, 이현구, 오종식, 정래동, 오상순, 변영로 제씨들의 평론, 수필” 등을 거론하며 “그 내용에 있어 너무나 단편적이며 또 세계관의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한 것이 통째”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2)</sup>

남로당 계열 역시 순수한 좌파라 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주류 좌파는 계급과 민족국가를 대립하여 사고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공산당선언」의 유명한 문구가 이를 상징한다. 그런데 남로당 계열을 지지했던 조선문학가동맹에서는 그러한 견해를 근대의 관점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계급이 농민과 소시민들을 인솔하고 반제·반봉건투쟁을 영도하는 민주주의적인 독립국가 건설운동” 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민족해방을 계급해방보다 먼저 이룩해야 할 선결과제로 설정하는 데로까지 나아갔다. “식민지의 노동계급은 먼저 자기 민족을 제국주의와 봉건유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해방되지 않는 계급임을 알아야 한다. 즉 민족

1) 김동리, 「한국적 문학사상의 특질과 그 배경-한국문학의 나이갈 길」, 『월간 문학』, 1978.11 참조.

2) 김동리, 「文壇一年의 概觀——一九四六年度の 評論, 詩, 小説에 對하여」, 『文學과 人間』, 白民文化社, 1948, 182쪽.

해방은 계급해방의 불가결한 전제요, 그 제일보인 것이다.”<sup>3)</sup> 좌파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였던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그룹이 이에 반발하여 평양으로 넘어간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4·3항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4·3항쟁은 과연 좌익의 준동으로 인해 벌어진 현대사의 비극인가. 남과 북이 갈라져 대치해있는 상황 속에서 판단한다면, 그리고 6·25 이후 펼쳐진 좌우 이념 대결 위에서 접근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해방기가 아직 그러한 갈등이 고착되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제주인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의식이다. 오늘날 제주인의 의식, 습속, 제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공동체의식이 과거에는 제주사회를 운영하는 바탕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권당”이란 말은 제도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만들어져 요즘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여기에 나타나는 자기들만의 끈끈한 연대의식은 제주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 특유의 공동체문화가 구축되는 과정을 역사 전개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3항쟁의 발발 조건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3중 구조’ 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브로델의 ‘3중 구조’란 ㉠ 지리적 환경을 기본 향으로 설정하고 난 뒤 그 조건 위에서 ㉡ ‘집단의 운명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 ‘사건, 정치, 사람들’을 파악하는 관점이다.<sup>4)</sup>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교차·충돌하는 지점으로서 제주의 지형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시각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영권은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한울, 2013)에서 출륙금지령 발효 시기까지의 조선시대 제주를 분석한 바 있다.

3) 임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임화 문학예술전집』: 평론2, 소명출판, 2009, 463-468쪽.

4)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 논고』, 민음사, 1990 ; 김홍식, 「해제: 브로델이 들려주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과고스, 2014 참조.

## II. 자연 환경과 문화 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

### 1. 다시 읽는 송당본풀이; 제주문화 형성의 기본조건 이해

제주 문화가 출발점을 대륙 방면에 두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73년 빌레못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의 유물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견된 황곰과 순록의 뼈·이빨은 제주도가 과거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으로부터 약 7,8만 년 전의 일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제4빙하기(4만 년~3만5천만 년 전)를 거치면서 제주는 지금과 같은 섬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sup>5)</sup>

불에 그슬린 순록의 뼈 등으로 판단하건대, 처음 제주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이들은 수렵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이후 섬으로 고립되고 난 뒤 농경문화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성에 관한 신화를 통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 이 곳에서 양을 나(梁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의 삼성이 혈거 생활을 하며 피의육식(皮衣肉食)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sup>6)</sup> 수렵에 바탕을 둔 삼성혈 시대의 문화는 그들의 15대 후손 대에 이르러 변화가 생긴다. 먹을거리를 찾아 바닷가로 나섰던 후손들이 커다란 껍짝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씨(성주)가 먼저 상자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 거기에는 오곡(五穀)의 종자(種子)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 양씨(왕자)가 열어본 상자에는 육축(六畜)이, 마지막 부씨(도내)의 상자에서는 아름다운 세 사람의 처녀가 걸어 나왔다.”<sup>7)</sup> 오곡의 종자는 농경문화를 상징하며, 육축(六畜)은 사냥 대상이었던 짐승이 이제 가축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 제주의 고씨, 양씨, 부씨가 세 처녀를 맞아 혼인하였다는 신화의 내용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송당본풀이를 보면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송당본풀이에서도 섬사람 소천국[宋天國]이 표

5) 鄭永和, 「先史 銅器 遺跡 發見 地 濟州道 的 最古 遺跡, 濟州道의 韓半島 연결說 立證」 『東亞日報』, 1973.9.1.

6) 진성기 엮음, 「삼성혈(三姓穴)」,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31쪽.

7) 위의 글, 33쪽.

류하는 무쇠상자를 발견하였고, 여기서 백주(白主)라는 여성이 나왔으며, 섬사람과 외래자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이 반복된다. 백주가 소천국에게 권하는 바도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결합을 암시한다. “이젠 사냥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어떨까요?”<sup>8)</sup> 하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싹튼다. 배고픈 소천국이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먹고, 그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 암소 한 마리를 더 구워 먹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소천국과 백주는 별거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아들 송국성의 귀환으로 종말을 맞이한다. 버릇 없다하여 무쇠상자에 집어넣어 바다에 띄워 보낸 송국성이 용왕의 사위가 되었고, 천자국의 난을 진압한 후, “일천 석의 군량과 일천 두의 병마, 그리고 삼천 군병을”<sup>9)</sup> 거느리고 귀향한 내용은 문화세력의 세대교체로 이해할 수 있다.

“겁에 질린 어머니 백주는 윗송당으로 가서 죽어 신이 되고, 아버지 인 소천국은 아랫송당으로 가서 신이 되었다. 후에 송국성은 한라 수호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기림을 받으며 제주도를 지키고 있다.”<sup>10)</sup> 살아서 별거했던 백주와 소천국은 죽어서도 따로 떨어져 신이 되었다. 물론 백주는 농경문화의 상징, 소천국은 수렵문화의 상징에 해당할 터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뒤를 이어 한라의 수호신이 된 송국성은 어떠한 문화를 대표하고 있을까. 천하의 맹장이 되어 천자국의 난을 진압하였으니 먼저 그는 조직화된 무력(武力)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맨몸으로 출항하고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귀향하였으니 제주도 바깥 세계와의 교류를 통한 존재 증명의 사례로 접근할 수도 있을 성싶다.

기실 제주도의 자연 환경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삼재(三災)의 섬’이라는 용어가 이를 축약하여 드러낸다. “옛 글에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山高深谷水災], 돌 많고 부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石多薄土旱災], 사방이 큰 바다 되니 바람의 재앙이라[四面大海風災] 하였다. 그리고 이 재해(災害)가 일 년 중에 거듭되니 흉년(凶年)이 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sup>11)</sup> 그렇지만 더 이상 수렵

8) 『소천국[宋天國]과 백주』, 위의 책, 77쪽.

9) 위의 글, 81쪽.

10) 위의 글, 82쪽.

11)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21쪽.

문화를 이어나가기도 마땅치 않다. 인구 증가율이 사냥감의 번식률을 뛰어넘게 되면 수렵은 어려워지고, 늘어난 인구가 모여 촌락을 이루었을 때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라시대를 살았던 제주인들은 일찌감치 섬 바깥 세계와의 교역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면서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해당 지역 권력과의 유대를 공고하게 쌓았다. 일정 수준의 조직화된 무력은 교역을 위하여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송국성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물에 해당한다.

유물에 의거하면, 중국과의 교역은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주시 산지향에서 발견된 한대 화폐, 구리거울, 용담동 무덤 유적에서 출토된 장검(長劍), 단검(短劍), 끌형무기, 주조(鑄造)도끼 등 수십 점의 유물은 한대 당시 이미 활발한 해상 교역이 이뤄졌음을 반영하는 자료들이다.”<sup>12)</sup> 문헌자료에서는 탐라가 한반도 국가 중 마한과 가장 먼저 교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주호州胡라는 큰 섬(제주-인용자)이 마한의 서쪽 바다에 있다. 그들은 조금 키가 작고 말하는 것도 마한과는 다르다. 모두들 선비처럼 머리를 깎으며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를 잘 기른다. 또 옷은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서 마치 바지를 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 배를 타고 마한으로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sup>13)</sup> 삼한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 되었을 것이다.

마한이 망한 뒤 탐라는 백제와 유대를 이어 나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다음 문장이 실려 있다. “문주왕 2년(476) 4월에 탐라국(耽羅國)이 방물을 바쳤다.”<sup>14)</sup> 한반도 남해와 서해를 제패했던 백제가 무너진 뒤 탐라의 교역권은 더욱 넓어졌는바, 『신라본기』에는 문무왕 2년(662) 탐라국주(耽羅國主)가 항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sup>15)</sup> 일본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본서기』의 한국어판 번역자는 각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멸망 이

12) 강문규, 「잃어버린 왕국, 탐라(耽羅)」上,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각, 2006, 47쪽.

13) 진수, 김원중 옮김, 「위나라 동쪽의 여러 나라들: 동이전東夷傳」, 『정사 삼국사: 위서魏書2』, 민음사, 2007, 747쪽.

14) 김부식, 『삼국사기』Ⅱ, 이강래 옮김, 한길사, 1998, 529쪽.

15) 김부식, 『삼국사기』Ⅰ, 이강래 옮김, 한길사, 1998, 167쪽.

후 탐라는 661년부터 688년까지 왜국에 9번 사신을 파견하였다.”<sup>16)</sup>

탐라가 일본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방포(方脯: 말린 고기)와 복(鰔: 전복)이었다. 이 중 전복은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듯하다. 745년 작성된 목간에는 지방 소국이 탐라복(耽羅鰔) 6근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헤이안시대(794-1185)의 율령에서도 탐라복 진상이 나타난다고 일본 학자들은 전한다. 이는 탐라와 일본 내 소국의 꾸준한 교류를 방증한다. 탐라의 전복은 중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보면, 문자명왕 13년(504) 위나라에 보낸 사신을 통하여 “가옥(珂玉: 패류)은 섭라(涉羅, 지금의 제주-인용자)의 소산인데”<sup>17)</sup> 섭라가 백제에 병합된 까닭에 조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탐라복의 상품가치는 중국에까지 알려졌던 것이다.

토양이 워낙 척박했던 탓에 탐라 사람들은 해산물(전복)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해산물(전복)을 외부 세계와 교역하여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교역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삶의 방편을 마련해 나가는 존립 방식은 이후 제주인이자 마땅히 끝어안아야 할 숙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삼재의 섬’이라는 조건은 몇 천 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송당본풀이에서 송국성(교역문화)의 등장으로 소천국(수렵문화)과 백주(농경문화)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러한 사실 위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탐라 사람들은 좋은 싫든 해양교역으로 나아가야 했으며, 그 안에서 성공 사례 혹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했던 바, 송국성은 그러한 바람이 투영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 2. 민족국가의 등장과 제주인의 분리의식;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충돌

탐라/제주사람들이 교역을 통해 가장 큰 재미를 본 것은 말이었다. 몽골제국이 선진적인 목마 기술을 전해주기 이전에도 물론 말 사육이 있었으나, 몽골제국의 직할령이 된 이후 제주의 말 산업은 크게 발전하였

16) 『역주 일본서기』3, 동북아역사재단, 2014, 351쪽.

17) 김부식, 『삼국사기』 I, 이강래 옮김, 한길사, 1998, 388쪽.



다. 몽골제국의 입장에서 보건대, 제주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부를 견제하기에 지정학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런 까닭에 몽골은 1273년 삼별초항쟁을 진압하자마자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삼았고,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와 함께 민심 수습 정책이 펼쳐졌다. ‘바다 건너 큰 마을[濟州]’의 옛 나라이름 탐라를 되찾아주는 한편, 1276년 목마장을 설치하여 원나라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키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몽골제국의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제주는 1368년 원이 망한 뒤에도 여전히 몽골 세력이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민왕 23년(1374) 최영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면서 소멸하였다.

말은 고가의 상품이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있었고, 도살한 뒤에도 쓰임새가 많았다. 어승마(御乘馬), 군마(軍馬), 교통용 역마(驛馬), 통신용 파발마(擺撥馬), 짐을 실어 운반하는 태마(馱馬), 수레를 끄는 만마(輓馬), 일반 짐을 운반하는 복마(卜馬), 농사용 농마(農馬), 답마(踏馬), 가마를 끄는 가교마(駕轎馬), 연자매를 돌리는 구마(白磨) 등이 수요에 따른 말의 구분이며, 말이 도살된 뒤에는 갈기와 꼬리가 갖·옷·악기 줄의 재료로 쓰였으며, 털은 옷과 모자, 가죽은 가죽신과 궁대, 힘줄은 활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고기는 제향용 건포육으로 올랐는데, 건마육은 중앙 정계의 실력자들에게 뇌물로 사용되는 고가의 사치품이었다.<sup>18)</sup> 그러니 해산물을 채취하여 교역하던 종래 제주의 경제구조가 말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제주 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까지 나아갔다.<sup>19)</sup>

그런데 제주의 말 산업을 조선시대 태종, 세종에 이르면서 몰락하고 만다. 태종은 모든 말을 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장적(帳籍)에 오르지 않은 개인 소유의 말은 사고 팔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말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태종 8년(1408)부터 제주의 말은 체계적으로 수탈되기 시작하였다.<sup>20)</sup> 그리고 세종 16년(1434)에는 우마적 사건이

18)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도서출판 한울, 2013, 80-81쪽.

19)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1428) 1월 6일 己丑; 이영권, 위의 책, 68쪽에서 재인용.

20) 이영권, 위의 책, 61-83쪽.

벌어졌다. 말을 키워 제주 바깥에서 팔아 식량을 구해왔던 제주사람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게 되자, 말을 밀도살하고 부산물들을 팔다가 관의 단속에 걸린 것이다. 우마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은 평안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다.<sup>21)</sup> 이로써 말은 물론 도살하여 생긴 말의 부산물까지 교역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주 말 산업이 급격하게 몰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말 산업의 몰락과 함께 제주 경제는 붕괴되고 만다. 농사에 적합지 않은 척박한 지질은 변함이 없었고, 말 산업이 호황을 맞는 동안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까닭에 해산물 교역으로써는 제주 경제가 지탱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성종~중종 시기에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다. 예컨대 『중종실록』에 “여역(厲役)이 크게 돌아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고, 이뿐만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하게 들어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가므로, 정의(旌義)·대정(大靜) 같은 데는 인가가 다 비었다”<sup>22)</sup>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제주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제주를 떠나 유민으로 떠돌게 되었다. 유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중국 해랑도(海浪島)까지 올라가 수적이 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다를 떠돌다가 생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약탈자로 돌변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는 인조 7년(1629) 출륙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출륙금지령은 순조 23년(1823)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중앙권력은 왜 제주의 말 산업이 몰락하도록 정책을 폈을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니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 말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이념인 성리학의 가치가 제주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송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논리적 대응 가운데서 성립하였다. 송은 요·서하·대월국 등을 제압하는 제국으로 군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송의 학자들은 “전 지역을 통괄

21) 이영권, 위의 책, 72쪽.

22)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1520) 10월 18일 壬寅; 이영권, 위의 책, 104쪽에서 재인용.

하는 단수의 통치자 없이 그저 복수의 국가가 공존하는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끌어안아야 했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 답은, 일종의 민족성(ethnicity) 개념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즉 각 나라들은 구별되는 별개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23)</sup> 이후 이러한 답변은 각 민족(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한편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성리학이 바로 그 결실인 바, 조선은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아 출범하였다.

민족국가는 타국에 대하여 구별 짓기를 감행하는 한편 안으로 법체제에 입각한 통합을 이끌어내면서 성립한다. 기자가 다스렸던 옛 조선[古朝鮮]을 잇는다는 맥락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사실이라든가, 태조 6년(1397)에 『경국육전(經國六典)』을 제정하여 시행했던 사실들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종은 민족국가 만들기에 두드러진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먼저 “나랏말싸미 中囡國귀에달아” 창제한 훈민정음을 꼽을 수 있다. 민족국가가 마련해야 하는 국어가 이때 확립되었다. 둘째, 세종 31년(1449) 4군6진을 설치함으로써 현재의 국경을 확정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다. 세종은 이전부터 북쪽 변방 개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우마적을 평안도로 강제이주토록 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sup>24)</sup> 또한 변방을 개척하거나 국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요청될 터, 군사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펼쳤다. 셋째, 애민정신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세종 26년(1444)에 펴낸 『권농교본(勸農敎本)』 앞머리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밥을 하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기실 맹자의 정전제 구상 이후 농업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파악하는

23) 피터K.볼, 『역사 속의 성리학』, 김영민 옮김, 예문서원, 2010, 36-37쪽.

24) 제주에서 호족이 사라진 것도 세종 때이다. 현길언은 『제주도지』(제주도, 제주도청, 1982, 795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조선조가 건국된 후에 태종 4년(1404) 4월에 세습해오던 성주와 왕자를 없애고 잠정적으로 성주(星主)를 도주관좌도지관(道州官左都知官), 왕자를 도주관우도지관(道州官右都知官)으로 삼았다가 1445년 세종 27년 6월에 폐지하였다. 그 결과 제주의 특권 계층은 완전히 사라졌다.(현길언,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제주문화론』, 129-130쪽.)

관점은 유교의 오랜 전통이다.

세종의 민족국가 만들기는 제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앙과도 같았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말 산업을 국가에 고스란히 빼앗겨 절박한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정책은 해양 교역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제주인들의 실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옥죄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화산회토(火山灰土)라는 척박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출을 채워내기 위해서는 감당치 못할 수준의 부역을 떠맡아야 했던 것이다. 성리학에 입각한 조선의 국가 운영은 이처럼 해양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를 끌어안지 못하였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조선이 동아시아 문명권(대륙문화)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민족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대륙의 현실에 대응하여 구축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양문화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일본이 변방이었듯이, 한반도의 유학자들은 제주도를 일본과 같은 수준의 미개지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다. “이곳의 풍토와 인물은 아직 혼돈 상태가 깨쳐지지 않았으니, 그 우둔하고 무지함이 저 일본 북해도의 야만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sup>25)</sup>

따라서 중앙정부 및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인식이 고왔을 리 없다. 이는 타지 사람들을 싸잡아 ‘육짓것’이라고 부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설에서도 배타적인 인식은 반복하여 드러난다. 예컨대 중종 10년(1515) 제주에 관관으로 부임한 서련(徐麟)은 마을 처녀를 제물로 요구하던 김녕사굴의 뱀을 퇴치하였다. 이후 관아로 돌아오는 도중 뱀이 구름을 타고 쫓아오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관아로 돌아온 뒤 의식불명으로 신음하다가 죽고 만다.[金寧蛇窟 전설] 숙종 28년(1702) 이형상(李衡祥) 목사는 통행할 때 자신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뱀의 목을 베고, 그 뱀이 당신으로 섬김 받던 광정당을 헐어버렸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당신(堂神)의 노여움을 산 그는 두 아들을 잃게 된다.[廣靜堂 전설] 제주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거부하였음은 두 전설에서 명확

25)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127쪽.

하게 드러난다. 선정을 베풀었어도 그들은 외지 사람일 따름이며, 외지인인 그들이 제주인의 삶에 개입하였으니 제주 민중들에게는 차별 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Ⅲ. 출륙금지령 이후 제주의 실상과 제주공동체문화의 특징

#### 1. 생활공동체의 형성; 수눌음과 말·전복 진상의 고된 부역

해양으로의 진출은 봉쇄되었고 토양은 여전히 척박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삶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래서 요청되었던 것이 수눌음이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 수눌음의 기원을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다만 공동작업 조직을 가리키는 표준어로 두레가 있고, 두레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있으니 이를 참조할 수는 있겠다. 민속학자 주강현은 두레의 원형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성립한 것으로 파악한다. 두레 발생의 발생론적 모태가 고대사회에 있었다더라도 “농업생산력의 발달, 향촌사회의 변동이란 나름의 역사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적 산물”<sup>26)</sup>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도 공동노동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을 터인데, 수눌음이 정착한 것은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인조 7년(1629) 이후가 아닐까 싶다.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주의 촌락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용수를 중심으로 마을은 여러 집단으로 갈라진다. 주강현은 제주도의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못·구름등을 파서 봉천수(奉天水)를 저장했다가 쓰고, 해안마을에서는 통물을 만들어 이용했다. 이웃끼리 공동으로 용수를 관리하는데, 제주도의 마을은 용수를 관리하는 몇 개의 공동집단으로 나뉜다.”<sup>27)</sup> 광령1리의 경우를 두고 설명하자면, 마을은 크게 절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과 순두물

26) 주강현, 『두레, 농민의 역사』, 들녘, 2006, 72쪽.

27) 위의 책, 697-698쪽.

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으로 나뉜다. 서쪽 동네의 북쪽에는 남죽이(南竹伊)물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이 있다. 중산간 마을이기는 하나 절물과 순두물·남죽이물은 통물이며, 남죽이못은 봉천수다.<sup>28)</sup> 제주에서 용수를 집단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수도 시설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동시설을 둘러싼 공동집단이 고대로부터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수눌음 형성의 절대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눌음의 전제인 공동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시간의 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치하는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종실록』의 중종 35년(1540) 기록을 보면,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sup>29)</sup>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타나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영권은 17세기 초 제주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출륙유랑이 줄을 이으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추론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킨 것이 바로 출륙금지령이었다. 출륙금지령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제주사람들은 섬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섬 안에서 어떻게든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척박한 화산회토로 인하여 토지생산력이 너무도 낮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여유분의 식량을 확보한 이는 없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제주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제 정착 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공동체 성립의 요건은 이러한 수순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행된 두레가 생산력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면, 제주도의 수눌음은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배면에 깔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주인들 사이에서 강조되는 ‘조냥정신’은 수눌음과 하나의 쌍이라고 볼

28)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봉천수라 하며, 바위틈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용천수라고 한다. 용천수 가운데 바가지로 물을 떠올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통물이다. 남죽이물(飲料水泉)과 남죽이못(家畜給水池)은 1818년 광령에서 태어난 고명숙(高明淑)이 출향했다가 외도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봤다고 전해진다.(광령1리, 「고명숙과 남죽이물」, 『光令略史』, 光令 一里, 1990, 135-136쪽.)

29)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159쪽에서 재인용.

30) 이영권, 위의 책, 160쪽.

수 있다. 아껴서 비축해야 한다는 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굶어죽은 할망 정지(부엌)가 보민(보면) 졸이서 말”이란 제주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살아남으려면 절약해야만 했고, 절약 이전에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눌음으로써 생산력을 높여야 했다. 수눌음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일반 두레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수눌음의 공동체의식에 대해 현길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주의 경우에는 단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인보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끝나지 않고, 개인의 집단소속 의식을 충족시키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sup>31)</sup> 주장현 또한 같은 관점에서 수눌음을 파악하고 있다. “화산토양인지라 농사의 어려움이 늘 따랐다. 따라서 제주도 수눌음은 단순한 협업노동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지닌다.”<sup>32)</sup>

수눌음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케왓집이다. 케왓이란 마을 소유의 밭을 말한다. 그러니까 계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밭에서 공동으로 노동하여 얻은 생산물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케왓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케왓뿐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특정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해 나갔던 사례는 공납·진상을 둘러싸고도 확인할 수 있다. 진상을 위하여 중산간 마을에서는 말을 길러야 했고, 해안가 마을에서는 전복이 있는 바닷밭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이때 말을 사육하는 데는 공유지가 필요했으며, 전복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닷밭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마을의 공동체의식은 공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속에서 강화될 수 있었다.

먼저 말 사육의 경우를 살펴보자. 파종 후 마소 떼를 앞세우고 밭을 밟는 작업을 밭 발린다고 한다. 종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는 한편 흙덩이를 잘게 부수기 위함이다. 밭 발리는 일이 끝나면 농가에서는 마소를 사역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마을의 마소를 모아 목야(牧野)에 방목하고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거나 테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일손을 줄이는 대책이 된다. 이때 각 마을에서 이용하는 목야

31) 현길언, 『제주문화와 제주사람의 의식의 바탕』, 『제주문화론』, 耽羅木石苑, 2001, 20쪽.

32) 주장현, 앞의 책, 689쪽.

지대는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종의 공간 점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광령1리에서는 “큰장, 굴몽냥선발, 엄남진마을, 비남내 등 150여 정보(町步)”를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은 마소를 방목하였고 목감(牧監)을 두어 일정한 품삯을 지불하며 마소를 돌보게 했다.”고 한다.<sup>33)</sup> 음력 6월 초닷새까지 마소를 목장 지대에 올려 보낸 후 6월 보름 경에는 테우리의 주관 아래 테우리제를 지냈다. 올려 보냈던 마소는 9월 그믐 경 마을로 내려졌다.

바당밭은 마을 공동 재산인 까닭에 바당밭을 함께 가꾸는 구성원에게만 해산물을 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했던 대표적인 의무로는 ‘바당풀캐기’(바다의 잡초 제거)와 시체 처리를 들 수 있다. 만약 한 마을에서 어장에 밀려온 시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 마을은 어장을 다른 마을에 빼앗겼다.<sup>34)</sup> 그러니 이러한 관행 이전에 먼저 바닷가를 뺨 둘러가며 마을 단위로 어장이 나뉘어졌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김영돈은 “오랜 세월이 걸쳐 민주적으로” 입어(入漁) 관행과 어장(漁場) 관행이 다져졌고, “법을 이상으로 이룩된 관행을 엄수하면서 해산물을 캐는 가운데 해녀 마을의 탄탄한 질서가 이룩된다.”<sup>35)</sup>고 파악하고 있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관행이 정확히 언제 정착하였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이러한 관행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검토가 가능하다.

기실 17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복 진상은 포작(鮑作)이 담당하였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원진(李元鎭) 목사가 1653년에 작성한 『탐라지(耽羅

33) 광령1리, 앞의 책, 127쪽.

34) 두 가지 사례만 인용한다. “제주도 涯月리의 H동네는 본디 納邑리의 소속이었지만, 예전에 納邑리는 班村이었으므로 그 체모 때문에 시신 처리를 외면했던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涯月리에서는 이를 마다않고 치러냈었고, 이를 빌미로 H동네의 어장은 涯月리의 어장으로 편입되었다 한다.” “舊左을 杏源리는 바다밭이 널따랗고, ‘작은 蔚山’이라 불릴 만큼 해녀의 물질이 극성스러운 바닷가마을이다. 그런데 杏源마을의 앞바다가 본래부터 이처럼 넓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웃마을의 귀찮은 몫인 시체 처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치러나갔으므로 바다가 훌쩍 넓어져 갔다.”(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2002, 363쪽.)

35) 김영돈, 위의 책, 같은 면.



志』에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많다”고 하였고, 1679년 정의현감 김성구(金聲久)가 기록한 『남천록(南遷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전에는 포작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족히 진상역에 응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진상할 때 조금도 빠뜨림이 없었는데, 경신년(庚申年, 1620) 이후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다가 결국 전복 진상역은 잠녀(潛女)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1702년 목사 이형상은 “섬 안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으므로 다만 잠녀에게 맡긴다.”라고 적고 있다.<sup>36)</sup>

출륙금지령(1629년)이 내려지기 이전 도내 포작들은 대거 섬을 떠났으며, 역병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이렇게 포작이 감소하자 진상 및 공납 부담은 잠녀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었다. 그런데 공납해야 할 물량은 정해져 있었으니 이형상 목사가 『탐라계록(耽羅啓錄)』에서 “그 고역이 목자의 열 배나 됩니다.”라고 한탄할 수준이었다.<sup>37)</sup> 공납해야 할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목사는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한다. 그러한 까닭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목사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1694년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는 전복 캐는 잠녀와 미역 캐는 잠녀를 열 명씩 묶어 책임져야 할 역을 함께 나누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복 따는 법을 익힌 자가 늘어 효과를 보았다고 이익태는 기록하였다.<sup>38)</sup> 한편 잠녀의 입장에서도 생산도장이라고 할 바당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터이다. 예컨대 일정 기간 금채(禁採)를 강제함으로써 전복의 수확량을 유지한다든지, 실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뉘므로써 잠녀로서의 생존을 안정화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관리는 잠녀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납·진상

36)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2」,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민속원, 2006, 118-123쪽.

37) 위의 논문, 121쪽. 그렇다고 목자(牧子)의 처지가 편안했던 것도 아니었다. 고실마(故失馬)가 생길 경우 목자는 변상해야 하였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형상 목사는 고실마 변상 때문에 “삼읍에서 부모를 판 목자가 5명, 처와 자식을 판 목자가 8명, 자신을 저당 잡힌 목자가 19명, 동생을 판 목자가 26명에 이른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또한 『탐라계록』에 실려 있다.(매거진1301 편집부, 「제주마의 자취를 좇아서」, 『매거진1301』vol.11, 2014.5, 13쪽에서 재인용.)

38) 위의 논문, 121-122쪽.

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데 작용하였다는 판단은 이러한 지점을 가리킨다.

## 2. 신앙공동체의 형성; 출륙금지령과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에서는 각 마을마다 신을 모시고 있다. 앞서 소천국과 백주 신화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들은 죽어 송당의 본향당신(本鄉堂神)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 마을을 차지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던 것이다. 예컨대 광령1리 경우를 보면, “마을 동쪽 무수천 부근에 ‘할망당’이라는 본향당이 있으며, 재앙을 막기 위한 부락민들의 기복처(祈福處)로 사시사철 이용된다. 설단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약 3백 년 전으로 추정되며 김씨 하르방·송씨 할망이라 불리는 부부신을 모시고 있다.”<sup>39)</sup>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소천국, 백주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 마을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의식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령에서는 송당 본향당신이 송씨 할망과 같은 향렬이라고 전한다. 옥황상제에게는 열두 신하가 있었는데, 십전대왕은 저승으로 보내졌고, 열한 번째 대왕은 강림사자(저승사자)로 명령을 받았으며, 송씨 대왕은 왼쪽에 생불보살·오른쪽에 화덕진군(火德眞君)을 끼고 인간계로 내려왔다. 하강한 송씨 대왕은 영주산 동남쪽 ‘안수못밭’에 터를 잡고 아들 5 형제, 딸 형제를 낳았다. “자식들이 장성해가자 큰 아들은 구좌읍 송당(松堂) 보호신으로 보냈고, 둘째는 대정(大靜) ‘새당’에 화덕진군으로 보내고, 셋째는 세화(細花)당으로 보내고, 넷째는 ‘당믈’[高山 서쪽마을]로, 막내는 원당봉(元堂峰) 수호신으로 보냈다. 그런데 막내아들이 너무 어려서 누이인 작은 딸 하나를 더 딸려 보내고 큰 딸은 정의(旌義) 토산당(兎山堂) 드렁소굴로 보냈다.”<sup>40)</sup> 이 가운데 원당봉으로 떠났던 오누이가 현재 광령 할망당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할망당에는 수령 4백 년도

39) 광령1리, 앞의 책, 88쪽.

40) 위의 책, 69쪽.

더 된 팽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동쪽 나무 아래 ‘송씨 아미’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쪽 팽나무는 ‘송씨 도령’ 자리로 남아 있다.

소천국·백주 자식들의 분산은 제주도 내 신앙권역과 관련이 있다. 원당봉의 바다 냄새가 싫어서 신엄(新嚴) 자운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송씨 할망 오누이는 절벽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가 싫어 다시 수산리(水山里) 당동산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수가 없는 까닭에 물이 솟는 곳을 찾아 광령 서쪽 당동산으로 넘어갔다. 마을이 커짐에 따라 이들은 현재 위치에 좌정하게 되었다. ‘송씨 할망’ 오누이 신의 이러한 이동 경로는 하나의 신앙권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읽을 수 있다. 신엄 서쪽에 ‘자운당’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만큼 신화 내용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광령 1·2·3리에 모두 ‘송씨 할망당’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 당의 분포는 인근의 제주시 도평, 연동, 오라, 도두동 일대와 한림읍 귀덕리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지도상으로 보면 27~28개에 이르는 이 ‘송씨 할망당’의 분포는 애월읍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송씨 할망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지역과는 다른 신앙권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이에 따라 생활환경이나 마을의 역사도 달랐으리라는 점을 짐작케 해 준다.”<sup>41)</sup>

따라서 제주도의 무속신앙은 세 개의 층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틀에서 제주인들은 소천국·백주를 시조로 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로 묶인다. 그리고 그 자식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는가에 따라 신앙은 몇 단위의 권역으로 분화된다. 분화된 신앙권의 신을 소천국·백주와 같은 항렬로 설정하고 있는 사례에는 신앙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것이다. 분화된 신앙권은 다시 각 마을을 단위로 하여 독자성을 획득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신앙 체계를 생활의 바탕으로 설정한 제주인들은 무속의 대상을 넓혀 나갔다. “이형상 목사가 판단하기에 제주도 주민들의 정신세계는 무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제주도 주민들은 각 마을에는 물론이고 산의 숲이나 하천·연못·언덕·평지의 나무와 돌에도 모두 신사를 세우고 치성을 드렸다.”<sup>42)</sup> 제주인의 무속신앙

41) 위의 책, 70쪽.

은 그만큼 뿌리가 깊었다. ‘당 오백 절 오백’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당 신앙이 언제부터 발생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마을의 신당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본향당(本鄉堂)과 가짓당(枝堂)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착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본향’은 ‘태손 땅’, ‘원초적인 고향’, ‘마을의 시원’이다.”<sup>43)</sup> 본향당이 마을의 시원이라면 본향당은 마을의 성립과 함께 출현하였다는 의미가 되겠다. 당 신앙이 크게 번성한 것은 17세기 중반 경부터라고 한다. “1660년(이조 顯宗)경부터 도내 전역에 무속신앙(巫俗信仰)이 만연하기 시작하여, 1675년(肅宗) 무렵까지 10여 년 동안 그 성세가 극에 달했었음은 확실한 듯하다.”<sup>44)</sup> 이전부터 당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겠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당 신앙이 번성하게 된 데에는 출륙금지령(1629년)의 위력이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먼저 고립된 섬 안의 제주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자. 무너진 경제 기반 속에서 혈연·지연에 입각한 끈끈한 연대는 살아남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그 연대감을 거역할 수 없는 당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신앙은 상당히 유효하다. 기실 본향당 신을 일러 제주 민중들은 ‘토주관(土主官)’ 또는 ‘토지관(土地官)’이라고 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본향당 신이 다스린다고 믿었던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향은 ‘태손 땅’, ‘원초적인 고향’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향당신을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조령적 성격’과 ‘토지신적 성격’, 즉 지연적(地緣的)·혈연적(血緣的)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설촌조상(設村祖上)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상을 당신으로 모신 마을은 하나의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된다.”<sup>45)</sup> 신앙을 통해 운영되는 공동체가 생활공동체와 일치할 경우 결속력은 배가되어 이념의 수준으로까지 고양된다. 제주의 당 신앙은 이러한 면모를 특징으로 하는바, 출륙금지령은 그 특징을 강화하는 데 작용

42)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耽羅文化』 제 19호, 1998, 206쪽.

43)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本鄉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26쪽.

44) 광령1리, 앞의 책, 86쪽.

45) 문무병, 앞의 책, 같은 면.

했다.

둘째, 한반도와 제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자면, 출륙금지령은 문화의 이질성을 심화시켰다. 출륙금지령은 민간 문화의 교류를 막는 까닭에 영향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학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유학에 입각한 가치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반도에서는 당 신앙이 배척되어 존립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신화 또한 잊혀져갔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던 탓에 민중들이 유학에 호의를 가지기 어려웠던 데다가, 출륙금지령 이후 유배객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학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 신앙과 다양한 신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라 해도 감히 이러한 문화를 훼손할 수 없었다. 예외가 있다면 이형상 목사가 유일하다. “이형상 목사 이전에 왔던 목사들 역시 제주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무당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신당을 파괴하고 무당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은 엄청난 갈등을 예상해야 했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강한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했다.”<sup>46)</sup> 이형상 목사가 파괴한 신당은 그가 제주도를 떠난 뒤 다시 복원되었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으로 남게 되었다.

#### IV. 제주문화의 전통과 4·3항쟁 발발 즈음의 상황

##### 1. 근대 체제 가운데서 강화된 제주의 공동체의식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이후 근대문물 및 제도는 조선 내부로 급격하게 밀려들었다. 세계열강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흥흥한 정세가 펼쳐지기도 했다. 제주도의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의 격류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던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먼저 육지부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근대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46) 조성윤·박찬식, 앞의 논문, 210쪽.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제이다. 육지의 농촌은 이러한 체제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다. 임노동자의 처지로 굴러 떨어진 소작농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 가지 사례가 된다. 농가수를 비교하건대, 1914년부터 1929년까지 자작하는 농가는 62,133호 줄었으며,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농가는 180,111호 늘었고, 소작농가 역시 373,210호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던 화전민 가구의 수도 34,332호 생겨났다.<sup>47)</sup> 화전민 가구가 두드러지게 늘었던 것은 지주가 소작농에게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였던 때문이다. “1930년도의 조사로는 정조(定租) 90%라는 살인적 고율의 소작료조차 실재하였다.”<sup>48)</sup>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정신의 상징인 두레가 붕괴한 것도 당연했다. 이를 촉진시킨 것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촌락 자체의 재산권이 없어지고, 촌락의 공유 전답과 아울러 공유임야도 소멸되었으며, 완전한 사적 경제로 전환되면서 전 촌락경제가 사분오열되다 보니 두레도 결국 그 조직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sup>49)</sup>

반면 제주에서는 지주자본의 출현을 통한 농촌의 재편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주자본의 논리를 유포하였던 일본인 설립 농업주식회사·일본인 지주가 제주로 들어와서 뿌리내리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재래의 지주가 있어서 혈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며 제주 민중들을 임노동자로 내몰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토지가 척박하여 생산량이 워낙 떨어졌던 탓에 애초부터 대지주라고 할 만한 세력이 제주에는 없었고, 똑같은 이유로 일본자본 역시 제주에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의 경우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촌락 공유지를 사적 경제로 재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목장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갑오개혁(1894-1896)을 통해 국영목장을 유지시켰던 마정제도, 공마제도, 점마제도가 폐지되어 국영목장 운영이 막을 내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국영목장 지대는 ‘무주공야’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했다. 일제강점 이

47)鈴木正本,『朝鮮經濟の現段階』, 437쪽; 林鐘國, 「민족적 빈궁의 현장-최서해의 「탈출기」, 『韓國文學의 民衆史』, 실천문화사, 1986, 140쪽에서 재인용.

48) 林鐘國, 「빈궁한 현실의 방관-전영택의 「회수분」, 위의 책, 66쪽.

49) 주강현, 앞의 책, 727쪽.

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이곳 국영목장 지대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도유지(道有地), 읍유지(邑有地) 그리고 인근 마을의 리유지(里有地) 등으로 변모하였다.”<sup>50)</sup> 갑오경장 이후 제주의 각 마을에서는 우마 방목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지역을 공유지 차원에서 차지해 나갔다.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 시기의 목장지대는 공문서 상으로만 무주공야일 뿐, 실질 차원에서 보자면 각 촌락이 주인이 되어 말과 소를 풀어놓는 들판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국유지로 편입되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920년대에 일제가 권장했던 공동목장 기부채납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운영했던 공동목장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시도였다고 판단되며, 기부채납 정책을 통해 제주도축산농업조합장(제주도사)은 마을 주민들이 관행적 목축지로 활용했던 공동목장 연고임야도 차지하려 했다.”<sup>51)</sup> 1933년 조선총독부가 전라남도 제주도에 「목야지 정비계획」 수립 지시했던 것은<sup>52)</sup> 공동목장 기부채납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는 공동목장의 실질적 소유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sup>53)</sup>

해안 마을에서도 마을 단위 바당밭의 소유 및 운영을 꾸준하게 이어나갔다. 그런데 개항과 동시에 그러한 존립 근거가 크게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사정은 중산간 마을과 달랐다.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제주 근해에서 불법어획을 자행하던 일본 어선은 고종 20년(1883) 7월 체결된 한

50) 康萬益,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景仁文化社, 2013, vi쪽.

51) 위의 책, 79쪽.

52) 위의 책, 33-34쪽.

53) 마을목장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군유지로 바뀌었다. 광령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말미암아 1960년 경 우리 마을 목장이 군유지로 이관되어 버린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광령1리, 앞의 책, 128쪽.) 지방자치제는 1952년 4월 25일 지방의원총선거가 치러지면서 시작되었고, 1961년 9월 1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부포고령 제4호’가 발동하면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시’가 아닌 ‘폐지’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덧붙이자면, 제주의 허파로 비유되는 꽃자왈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현재까지도 마을 소유이거나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생태계의 보고 ‘꽃자왈’/ 제주시, 매입 계획 차질, 『경향신문』, 2015.4.8)이라는 기사는 제주시의 꽃자왈 매입 계획이 차질 맞는 까닭을 그러한 소유 형태에서 찾고 있다.

일통어장정(韓日通漁章程) 이후부터는 아예 제주 바다를 헤집고 다녔다. 박찬식은 일본인이 제주도에서 잠수기선을 도입하여 작업하기 시작한 기점을 1882년으로 잡고 있다. “잠수기 어업의 창시자로서 가파도를 근거지로 하는 吉村組가 기계선 12척, 운송선 5척으로 조업을 했는데, 吉村典三郎는 山口縣 출신으로서 1882년부터 제주도·거문도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1880년대 말에는 본격적으로 제주 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하여 청국으로 수출하는 등 1889년 한 해에만 22,000엔의 수익을 올렸다.”<sup>54)</sup>

헬멧과 잠수복을 착용하고 잠수기선(潛水機船)에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으며 작업했던 일본인 머구리들은 잠녀의 바당밭까지 침탈하여 해산물의 씨를 말렸으며, 온갖 패악을 저지르곤 하였다. 고종 27년(1890) 벌어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그 앞뒤로 누차 반복되고 있다. “5월 15일에는 일본어선 수십 척이 건입포 앞 바다에 와서 무단으로 어로하므로 근처의 어민들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자 일본인들은 총검으로 임순백(任順伯) 등 16인에게 살상(殺傷)을 입혔다. 또 6월 13일에는 수십 척이 조천·함덕·북촌·동북 등지에 하륙하여 민가에 침입하고는 부녀자를 겁간하고 식량·의류·가축 등을 약탈하였으므로, 독판교섭 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閔種默)이 일본공사 미산정개(梶山鼎介)에게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 어민의 제주 출어를 금하도록 하였다.”<sup>55)</sup> 일본인의 이러한 만행을 몇 사람의 개별적인 일탈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제주도 침략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1885년부터 제주도를 군사기지 및 한반도 어장 침투의 최고 요충지로 설정하는 특집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1905년에는 제주도 내 침략목록을 열거하고 있는 靑柳綱太郎의 『濟州島案内』가 출간되고 있었다.<sup>56)</sup>

54) 박찬식,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9, 155쪽.

55) 김봉옥, 앞의 책, 200쪽.

56) 박찬식,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의 ‘II.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 참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제주 잠녀들이 선택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섬 바깥으로 출가물질을 떠났다. 출가물질이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한일통어장정 이후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sup>57)</sup>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물질은 1903년 일본 동경 미야케지마(三宅島)로의 출행이 처음인 듯하다.<sup>58)</sup> 1895년 무렵 시작된 바깥물질은 꾸준하게 대상 지역을 넓혀갔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동해안을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갔고, 서해 방면으로 중국의 칭다오(靑島)·다롄(大連)까지 나아갔으며,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진출하였다. 둘째, 1920년 4월 16일 제주도 유지들의 도움 위에서 잠녀들은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창립하였다. 해녀조합은 출가 잠녀와 제주도 내 잠녀의 구제 보호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증개하는 한편 자금 융통도 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물질할 권한을 얻기 위한 교섭도 벌였다. 해녀조합이 거둔 성과가 어떠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조선해주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공동판매를 조합의 직접 관할로 하게 되자, 해녀조합의 공동판매고는 1921년에 9만원, 1922년에 19만원, 1923년에 22만원, 1924년의 경우 30만원으로 급성장하였다.”<sup>59)</sup>

이렇듯,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간 차이는 있으나, 개항하고 일제강점기가 펼쳐져어도 제주도에서의 공동체의식은 해체되지 않았다. 수눌음이 요구되었던 척박한 환경은 여전하였으며, 마을 단위의 목장·바당밭 공동소유 경향은 더욱 명확해졌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프랑스)·일본제국주의 등 바깥 세력이 생활 근거를 잠식해 들어왔을 때, 제주인들은 마

57) 박찬식은 양홍식·오태용의 『제주항토기』(프린트본, 1958)를 좇아 1887년으로 잡고 있다.(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2』, 126쪽). 한편 마스다 이치지(陸田一二)는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제2집, 1934)를 통해 1895년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로 처음 바깥물질 나간 것이 시초라고 기술하고 있다. 박찬식은 같은 논문 같은 페이지에서 1892년 설도 소개하고 있다. “1915년 당시 제주군 서기였던 江口保孝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게 최초라고(『濟州島出稼海女』『朝鮮報』, 1915.5.1)” 밝혔다는 것이다.

58) 고미, 『바다 건너 ‘작은 제주’ 만든 유목적 주체로』, 『제민일보』, 2015.2.17.

59) 『東亞日報』, 1924.4.28.;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2』, 129쪽에서 재인용.

을(생활공동체) 단위의 연대를 통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 나갔다. 광무5년(1901) 벌어졌던 이재수의 난, 1931-1932년 전개한 제주해녀항일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외부의 적을 마주하고 펼친 투쟁 속에서 제주도 내부의 결속력이 더욱 커졌던 것은 당연하다. 이는 공동체가 해체되어 나간 육지의 사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의 전개였다고 할 수 있다.

## 2. 한반도로부터의 분리의식과 인민위원회 활동

반도국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탐라국 건설의 꿈은 제주인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고려 의종 22년(1168)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을 축출해 버린 양수의 난이 있었고, 조선 들어서는 1601년 벌어진 소덕유·길운절의 역모 사건, 1813년의 양제해의 모변, 1898년 방성철의 난 등이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던 시도들이다. 탐라국 건설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16세기 이후 제주 민중들 사이에서 분리의식이 유지되어 왔음은 앞에서 서론, 이형상 연관 전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주인들 사이에서 면면히 이어왔던 분리의식은 해방기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생활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결속력 또한 여전히 강했다. 그러니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 인민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인민위원회는 자치적 행정기구를 표방하였고,<sup>60)</sup> “마을마다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주민들의 추대 혹은 직접투표에 의해 위원으로 뽑혔기 때문이다.”<sup>61)</sup>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읍면 단위에서 먼저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를 근간으로 구축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말 서귀면, 9월 8일 제주읍, 9월 6일 7~8일 대정면 등에서 조직을 완료하였다.” 각 읍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여 결성식을 가진 날짜는 9월 22일이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도 9월

60) 이영권, 「제주도 유력자(有力者) 집단의 변천과 성격」, 『4·3과 역사』 제2호, 2002, 각, 285쪽.

61) 이영권,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꿈꾸며」, 『내일을 여는 역사』 11호, 내일을 여는역사, 2003.봄, 48쪽.

하순부터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인민위원회는 읍면 단위뿐만 아니라 각 리별로 조직되기도 하였다.”<sup>62)</sup> 인민위원회라는 조직 틀로 인하여 남로당 계열과 관련시킬 수 있겠지만, 제주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여 재빨리 조직 건설에 나섰는가는 의심할 만하다. 가령 광령과 같은 마을에서는 당시 원했던 바가 지방 분권주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미국의 점령 정책은 그것이 비록 군정(軍政)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경제·행정 질서를 정리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38선의 분단과 국내질서의 혼란, 특히 좌우익의 극렬한 대립 등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비나 지방선거를 실시할 겨를이 없었다.”<sup>63)</sup> 여기서 말하는 지방 분권주의는 제주인 사이에 전래하는 분리의식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공동체는 그대로 유지되던 중앙정부의 수탈을 거부하는 맥락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인민위원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동력도 이와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다. “육지의 인민위원회가 대부분 1945년 12월을 지나면서 무력화되었던 반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상당 기간 권력을 유지했다.”<sup>64)</sup> 인민위원회 조직이 제주도에서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제주인들이 이끌어왔던 공동체 운영 원리와 일치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중앙의 좌익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었던 장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시위 군중에 대한 발포로 촉발된 좌익 주도의 10월 봉기에는 불참한 반면, 좌익 세력이 보이코트한 1946년 10월 입법의원 선거에는 참여해 활동가들인 구좌면 인민위원장 문도배(文道培)와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 김시탁(金時鐸)을 당선시켰다.”<sup>65)</sup> 좌익조직의 이념과 운영원리만을 중심에 두고 보면 이러한 대목은 결코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sup>66)</sup>

62) 장윤식, 「제주도 인민위원회」,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시.

63) 광령1리, 앞의 책, 29쪽.

64) 이영권,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꿈꾸며」, 49쪽.

65) 장윤식, 앞의 사이트.

66) 이러한 관점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찬식의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

미군정은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두고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 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sup>67)</sup>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 있다. 이러한 인민위원회가 무너진 계기는 1947년 3·1절 발표사건이었다. 제주읍 북국민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가 끝난 뒤 3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시가행진을 벌였는데, 기마경찰의 말굽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흥분한 군중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던바, 무장경찰이 총격을 가해 찢먹이를 가슴에 안은 여인, 15세 학생 등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시위 주동자 검거에 주력하였고, 제주도의 성난 민심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발로 이어진 파업에는 관공서·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였고, 현직 경찰관까지 합세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 좌익 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와해시켰다.

“인민위원회 세력만 무너졌던 건 아니었다. 미군정에 협력했던 제주 출신 인사들도 점차 권력을 잃어갔다. 광적인 극우세력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3·1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민의 신망을 받던 초대 도지사 박경훈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전북 출신 극우주의자유해진이 부임했던 것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sup>68)</sup> 이로써 제주 민중

---

치의식」(『탐라문화』 28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을 꼽을 수 있다. 함한회는 이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해방 후 자율성이 강한 제주도 사람들이 조직해 낸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지도자들, 단체들이 사실 사상적인 외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949년 4·3사태가 진정된 후 작성된 미국정보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주민의 기질이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독립적이며 육지에서 온 관료들과 이주해 온 사람들과 결부되는 간섭과 도둑질과 독직 등에 대단히 분개한다.’(92쪽)는 짐까지 들어서, ‘제주사람다움’이 일으킨 사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제주도민의 심성을 본질화시키는 기질론으로 후퇴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제주도민의 상징적 행위를 두껍게 읽어봄으로써 공동체성, 자율성 또는 육지로부터의 독립성을 제주도민의 정체성으로 규정해보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함한회, 「증언, 생활사, 구술사—기억의 구술과 역사(4·3의 경험과 제일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4·3과 역사』 9·10호 통권, 2010, 28-29쪽.)

67) 위의 글에서 재인용.

68) 이영권,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꿈꾸며」, 54쪽.

과 미군정 사이를 매개할 정치적 완충 지대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남은 길은 강경 대결밖에 없었고, 그 방향에서 벌어진 것이 1948년 4·3항쟁이었다. 3·1절 발표사건 이후 근거를 잃은 채 한라산으로 내쫓긴 좌익 게릴라들이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해변마을을 습격하여 14개 경찰지서와 출장소를 방화하고, 수 명의 경찰관을 살해하면서 4·3은 시작되었다.

4·3시기 전면적인 폭압을 행사했던 이들도 육지 출신이었다. “이 시기 불법 구금과 학살을 자행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극우성향의 군·경 수사기관 담당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탁성록 9연대 정보과 대위, 송효순 헌병대 대위, 최난수 경찰특비수사대 경감, 박대의 제주경찰서 사찰과 총경, 그리고 제주도 서북청년회 단장 김재능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sup>69)</sup> 반면 5·10 총선이 지난 5월 하순까지도 좌익 게릴라들과 군대는 제주인이라는 틀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라산으로 올라간 게릴라들이 경찰력을 주된 공격목표로 삼았던 까닭은 ‘육지순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력이 섬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출신이 대반인 제9연대는 4월 3일 이후의 상황을 제주인들과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력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게릴라 진압에 소극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런 까닭에 향토부대라 할 수 있는 제9연대는 육지에서 창설된 제11연대로 교체되고 말았다.

‘육지 대 제주’라는 대립 구도, 즉 제주인들의 분리의식 경향은 이렇듯 해방기와 4·3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리의식 경향의 뿌리는 매우 깊다. 멀리 보자면 탐라국 지위에서 제주라는 지역 단위로 전락한 이후부터 싹텄을 터이며, 가깝게는 태종·세종이 실시했던 제주 목마산업 몰락 정책 이후 점차 표면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조 7년(1629)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제주인의 분리의식을 고착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과연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4·3항쟁의 발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제주인들은 4·3항쟁 당시 서북청년단으로 상징되는 육지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4·3항쟁이 끝난 뒤에는 4·3을 좌익 세력의 준동

69) 위의 논문, 56쪽.

으로 규정한 중앙권력에 의하여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니 4·3항쟁을 둘러싼 역사의 전개가 또다시 제주인의 분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V. 분리주의의 자율성에 입각한 민족공동체 구성 모색

근현대사를 제주의 공동체의식에 맞추어 써내려간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은 적지 않다. 먼저 제주에서 출판된 작품집의 몇 작품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무병은 굿시라는 양식을 차용한 「날랑 죽건 닥밭에 문영…」(『날랑 죽건 닥밭에 문영…」, 각, 2000)에서 이재수의 난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수는 신 내림을 받은 인물로 제시되었고, 토산당 신목이 베어진 사건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대정상무사는 단골의 결사체로 처리되어 있다.<sup>70)</sup> 신앙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재수의 난을 파악하는 것이다. 오경훈의 「제주항2: 모변(某邊)」(『제주항』, 각, 2005)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제주 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수작이다. 제주 어장을 침범한 일본 사내들은 부녀자를 겁간하는 등 약탈자로서 등장하며, 무능한 정부는 분쟁을 두려워하여 제주인들의 자제만 촉구하며, 파견되어 온 지방 관리는 일본인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는 과정에 제주의 마을 단위 생활공동체가 어떻게 공모하여 대응했는가가 흥미롭게 복원되어 있다.

4·3항쟁을 다룬 작품으로는 한림화의 「매고일지」와 김석희의 「땅울림」이 인상적이다. 한림화는 등장인물 ‘돌통이’의 입산 동기를 제주의 공동체의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찾노라고”<sup>71)</sup> 산으로 오른 돌통이가 남긴 편지의 일부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사상가가 아닌 담에야 실로 좌·우 어느 편이 사람살기에 좋도록 되

70) ‘단골’은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 집단을 말하며, ‘대정상무사’는 방성철의 난 당시 대정 군수 채구석, 좌수 오대현 등이 주동이 되어 만든 비밀결사의 무점포 조함을 가리킨다.

71) 한림화, 「매고일지」, 『깊은 적막의 끝』, 도서출판 각, 2001, 18쪽.

어먹은 사상인지 모르네. 한편으로 신학문을 한 사람들, 선각자들이 주장하는 좌도 아니노라 우도 아니노라는 사회주의 사상이란 무엇인지 더구나 짐작도 못하는 판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벗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뭘 하든 젊은 놈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참이네. 사람이 제 푼수대로 뗏뗏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룩하는 데 내 힘을 쓸 참이네.”<sup>72)</sup> 김석희의 「땅울림」은 마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써내려간 소설인 듯하다. “당시 좌익의 무장 게릴라는 고작 300명에 불과했으나,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명의 희생과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사건을 좌익의 정략적 무장봉기라고 단순화시켰을 때,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던 웬지 답답하고 어딘지 모르게 근질거리던 기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하수로 흐르다가 마침내 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와, 강한 결속감으로 끈질긴 저항을 가능케 했던, 그 잠재적 조직력의 실체는 무엇이었던가?”<sup>73)</sup>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있는 도청 국기계양대를 바라보며 탐라공화국의 건설 가능성을 떠올리는 「땅울림」의 ‘현용직’은 분리주의로까지 나아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제주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이즈음까지 나아간다면 하나의 질문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해방기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족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표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가령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가행진에서 제창된 구호는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 지지”,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촉구”, “3·1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였다.<sup>74)</sup> 여기에 대해서는 현기영이 쓴 『바람 타는 섬』의 한 장면을 통

72) 위의 소설, 14쪽.

73) 김석희, 「땅울림」, 위의 책, 119쪽.

74)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미, 영, 중, 소가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좌익 세력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후 5년 뒤 한국 독립을 주장하였고, 주도권을 잃은 우익 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즉각 독립을 주장하며 반탁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를 좌익 대 우익의 대결 구도로만 치환해서는 곤란할 듯싶다.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나름의 관점에 따라 정세를 판단하여 방향을 정했다더라도 선택지는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다. 그

하여 답변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 ‘시호’는 제주도 전통 사회를 “명령을 받지 않는 인간,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인간, 자유인, 자주인, 자치인이 상부상조로서 살아가는 계급 없는 평등한 공동체”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치로서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촌락공동체, 그러한 촌락공동체들이 여럿이 모여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부상조하는 자유연합을 통해 한 개의 군을 만들고 여러 군들의 자유연합에 의해 바로 민족공동체에 이르는 것”을 역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sup>75)</sup> 그러니까 시호는 촌락공동체의 연합으로서 제주공동체를 상징하고, 다시 제주공동체와 유사한 지역 단위 공동체의 연합으로서 민족공동체를 구상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각 국가의 자율성에 입각한 연대체로서의 세계 운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해방기 민족에 관한 제주인들의 태도는 여기서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제주공동체는 민족공동체로의 모색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을까. 변방에 위치하여 나라 잃은 설움을 툭툭히 겪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해방을 맞았을 때, 제주인들의 뇌리 속에는 프랑스 제국을 등에 업은 천주교 세력의 폭압, 각종 명목을 가져다붙인 일본 제국의 수탈 등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일제 말기의 공출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바다. 예컨대 군마 확보를 위하여 일제는 1937년부터 15년 동안 개량마 4만 두 증식을 목표로 ‘조선마정제일기계획’(朝鮮馬政第一期計劃)을 실시하였고, 1938년 통과된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사료와 말을 강제로 징발해 가기도 했다.<sup>76)</sup> 반복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주인들에게는 제주공동체를 끌어안는 상위 단계에서의 민족공동체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즉 종래의 ‘소천국·백주를 시조로 하는 신앙(제주도) - 소천국·백주의 자식 가운데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가에 따라 갈리는 신앙 권역 - 마을 단위의 신앙’에 대응하는 생활 단위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확장으로서 제주도의 상위 단위에 민족국가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

러니 결과만을 두고 좌익 대 우익으로 양분하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애초의 의도를 고려치 않으려는 이데올로기의 함정이라고 봐야 한다.

75)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141쪽.

76) 康萬益, 앞의 책, 27-28쪽.



것이다. 만약 분리주의를 고수할 경우에는, 김석희의 「땅울림」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탐라국 건설로 나아갈 나아가게 될 터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념적인 형태로 보건대, 두 경우는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주의를 근거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고 좌우 이데올로기가 대결하는 틀 안에서만 파악한다면, 4·3항쟁은 좌익의 선동에 휩쓸린 제주인들의 반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만익,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2013.
- 강문규, 「잃어버린 왕국, 탐라(耽羅)」上,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각, 2006.
- 고미, 「바다 건너 ‘작은 제주’ 만든 유목적 주체로」, 『제민일보』, 2015.2.17.
- 광령1리, 『光嶺叢書』, 광령1리, 1990.
- 김동리, 「문단 일 년의 개관」, 『인간과 문학』, 백민문화사, 1948.
- \_\_\_\_\_, 「한국적 문학사상의 특질과 그 배경」, 『월간문학』, 1978.11.
-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 김부식, 『삼국사기』 I, 이강래 옮김, 한길사, 1998.
- \_\_\_\_\_, 『삼국사기』 II, 이강래 옮김, 한길사, 1998.
- 김석희, 「땅울림」, 도서출판 각, 2001.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2002.
- 매거진1301편집부, 「제주마의 자취를 좇아서」, 『매거진1301』 vol.11, 2014.5.
- 문무병, 「날랑 죽건 닥발에 문영…」 『날랑 죽건 닥발에 문영…」, 각, 2000.
- \_\_\_\_\_, 『제주도 본향당(本鄕堂)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박찬식,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9.
- \_\_\_\_\_, 「4·3중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2」,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민속원, 2006.
- 오경훈, 「제주항2: 모변(某邊)」, 『제주항』, 각, 2005.
- 이영권, 「제주도 유력자(有力者) 집단의 변천과 성격」, 『4·3과 역사』 제2호, 각, 2002.
- \_\_\_\_\_,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꿈꾸며」, 『내일을 여는 역사』 11호, 내일을 여는역사, 2003.봄.
- \_\_\_\_\_,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 \_\_\_\_\_,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도서출판 한울, 2013.
- 임종국, 「민족적 궁핍의 현장」, 『한국문학의 민중사』, 실천문화사, 1986.
- \_\_\_\_\_, 「빈궁한 현실의 방관」, 『한국문학의 민중사』, 실천문화사, 1986.
- 임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임화 문학예술전

집』5, 소명출판사, 2009.

장윤식, 「제주도 인민위원회」,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시.

정영화, 「先史 공금증 폴 빌레못洞窟」, 『동아일보』, 1973.9.1.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제  
19호, 1998

주강현, 『두레, 농민의 역사』, 들녘, 2006.

진성기 엮음,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진수, 김원중 옮김, 「위나라 동쪽의 여러 나라들: 동이전東夷傳」, 『정사 삼국지:  
위서魏書』2, 민음사, 2007.

피터K.볼, 『역사 속의 성리학』, 김영민 옮김, 예문서원, 2010.

한림화, 「매고일지」, 『깊은 적막의 끝』, 도서출판 각, 2001.

함한희, 「증언, 생활사, 구술사-기억의 구술과 역사」(4·3의 경험과 재일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4·3과 역사』 9·10호 통권, 2010.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4.

## Abstract

## Jeju's Culture of Community and the 4·3 Resistance's Conditions of Outbreak.

Hong, Gi-Don\*

This article focuses on exploring Jeju characteristic culture of community's building process with a three tiered structure argued by Fernand Braudel and analyzes the 4·3 resistance's conditions of outbreak. Jeju is unsuitable for farming to the point of island of the three disaster(三災). Jeju people seem to realize these conditions as shown by 『Songdang-bonpuri』 in which combination between hunting culture and farming culture was so fragment that marine trade excelled. Relics and historical records prove that Jeju traded with the Han(漢) of China, the Samhan(三韓)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chief items of export changed from abalone to horse, cause it makes profits, after Yuan(元) had installed the horse ranch in 1276. However, in the period from Taejong to Sejong of Chosun, seeking a nation-state, Chosun had control over Jeju's horse industry. In addition, Chosun hold trading appendages of slaughtered horses in check. As a result, horse industry collapsed; Jeju people became drifting people(流民) or pirates(水賊) wandering the sea near the Korean peninsula. In 1629, Chosun issued the ban that Jeju people was forbidden from leaving the land.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atholic University.

Jeju people had to struggle to maintain their existence with Jeju cutting off from land for two hundred years. That is why Jeju characteristic community spirit based on the sharing of village unit built; this spirit settled down to Sunurum system. Also, village community had religious belief; Jeju people had consciousness on separation from Chosun while they revolted against central authority which suppressed faith, predicated upon ideology of Confucianism. In modern times, reinforcement of village community requires attention and the followings motivate it; landowner's capital did not enter into Jeju. It could make maintaining agricultural community. Ranches and fisheries of beaches, originally a state demesne, converted into public land of village. Facing liberation, Jeju people drove for the decentralization system grounded on the village community. But, a series of policy that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ssued was against what Jeju people wanted and the group dispatched from land had confrontation. Nine regiment stationed in Jeju understood the meaning of 4·3 as fight between Jeju land and they so avoided intervening that they could be replaced. It is a very symbolic event in that it shows the aspect of conflict at that time. There are obvious evidence for that many novels dealing with 4·3 resistance embody and focus on Jeju characteristic community spirit.

Key words : a three tiered structure of Fernand Braudel, island of the three disaster, the ban of leaving the land, Jeju's culture of community, 4·3 resistance

**교신** : 홍기돈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E-mail : ghhong@chol.com)

논문투고일 2015. 05. 11.

심사완료일 2015. 06. 03.

계재확정일 2015. 06. 10.